

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
제2외국어/한문영역 일본어 I 정답 및 해설

01. ③ 02. ① 03. ② 04. ④ 05. ② 06. ⑤ 07. ④ 08. ① 09. ④ 10. ③
11. ⑤ 12. ③ 13. ④ 14. ③ 15. ① 16. ③ 17. ① 18. ② 19. ④ 20. ⑤
21. ⑤ 22. ③ 23. ⑤ 24. ③ 25. ⑤ 26. ④ 27. ② 28. ② 29. ① 30. ④

[1~5] 발음 · 문자와 어휘

1. 가타카나 표기의 이해

정답 해설: 왼쪽 낱말 카드는 ‘アイスクリーム(아이스크림)’이고, 오른쪽 낱말 카드는 ‘リサイクル(재활용)’이다. 그러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‘リ’이다. 정답 ③

2. 낱말 표기의 이해

- ① 저녁 무렵에는 비가 그치겠지요.
② 이사 때문에 주소가 바뀌었습니다.
③ 여기에 전화번호를 써 주세요.
④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.
⑤ 출구를 몰라서 약속에 늦었습니다.

정답 해설: 옳은 표기는 ‘② じゅうしょ, ③ ばんごう, ④ ともだち, ⑤ でぐち’이다. 그러므로 ①이 정답이다. 정답 ①

3. 한자 읽기와 박(拍)의 이해

- ① 가족은 부모님과 형과 남동생과 나입니다.
② 어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.
③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
④ 유희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.
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키가 커졌다.

정답 해설: 한자 읽기와 박의 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両親(りょう し ん): 4박 ② 予約(よ や く): 3박 ③ 来週(ら い しゅう): 4박
④ 留学(りゅう が く): 4박 ⑤ 入学(にゅう が く): 4박

그러므로 박의 수가 다른 것은 ②번이다.

정답 ②

4. 동사 어휘의 이해

- 전철이 지나갑니다. 뒤로 _____ 주세요.
○ 딸은 손님에게 차를 내오고 _____ 갔습니다.

- ① 지나고 ② 일어서 ③ 데리고
④ 물러나, 물러 ⑤ 나아가고

정답 해설: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전철이 지나가므로 위험하니 뒤로 물러서라는 지시하는 상황이므로 ‘さがって’가 적절하다. 두 번째 문장에서는 딸이 손님에게 차를 내온 뒤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 나가는 상황이므로 ‘물러나 나가다(さがって いく)’라는 표현이 적절하다. 그러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‘さがって’이다. **정답 ④**

5. 형용사 어휘의 이해

A: 요즘 재미있는 영화는 뭐가 있을까?

B: 음. 미카가 영화에 대해 _____ 니까 물어볼까?

- ① 넓다 ② 자세하다, 잘 알다 ③ 세세하다, 자세하다
- ④ 친하다 ⑤ 훌륭하다

정답 해설: 빈칸에는 어떤 분야에 대해 잘 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‘~に’와 호응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. ‘~に くわしい’는 ‘~에 대해 잘 알다(박식하다), ~에 정통하다’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널리 쓰인다. **정답 ②**

[6~10] 문화

6. 언어문화의 이해

유나: 여기에 가게가 있었구나. 자주 와?

사야: 응. 이 가게 딸기 케이크가 유명해. 게다가 가게도 분위기가 있고,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지?

유나: 가게도 ‘맛이 있다(味が ある)’고? 케이크가 맛있다는 뜻이야?

사야: 음식이 맛있다는 뜻이 아니야. 테이블 같은 것도 멋지고, 이곳만의 좋은 점(매력)이 있다는 뜻이야.

유나: 오, 그런 뜻이 있구나. 처음 들었어.

- ① 케이크를 먹고 사야는 ‘분위기가 있다’라고 말했다.
- ② 유나는 가게의 테이블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다.
- ③ 사야가 자주 가는 가게에 유나도 온 적이 있다.
- ④ 유나는 ‘味が ある(분위기가 있다)’의 사용법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.
- ⑤ 그 가게만의 매력이 있을 때 ‘味が ある’를 사용한다.

정답 ⑤

7. 일상생활(연중행사) 문화의 이해

새해의 신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에 두었던 ‘가도마쓰’ 등을 태우는 것을 ‘돈도야키’라고 한다. 일본에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, 새해 1월 15일 무렵에 한다. 집 근처의 신사나 공원, 넓은 장소에서 지난해에 가지고 있던 오마모리나 합격 등을 기원했던 다루마를 함께 태우기도 한다. 새해의 신이 연기를 타고 하늘로 돌아가신다고 전해진다.

정답 ④

8. 일상생활(행운 기원) 문화의 이해

렌 : 신사는 오랜만이네. 아, _____가 있어.
유키: 정말이네. 한번 뽑아 보자.
렌 : 응. 좋은 게 나오면 좋겠다.
유키: 와, 나는 대길이야. ‘무슨 일이든 잘 된다’라고 쓰여 있어.
렌 : 좋겠다.

① 오미쿠지 ② 마네키네코 ③ 지토세아메 ④ 단자쿠 ⑤ 데루테루보즈

정답 ①

9. 언어 문화의 이해

하나 : 선생님, 어제 선배한테 ‘노래 정말 잘하네’라는 말을 들어서 기뻐어요.
선생님: 오, 그래요? 지난번에 피아노도 칠 수 있다고 했었죠?
하나 : 네. 저는 노래보다도 피아노를 잘하는데, 처음으로 노래를 칭찬받아서 깜짝 놀랐어요.
선생님: 하나 씨, 자기 자신에 대해 ‘上手だ(잘하다)’를 쓰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니까, ‘得意だ(자신 있다, 능숙하다)’를 쓰는 것이 좋아요. ‘영어를 잘한다’라든가 ‘스포츠를 잘한다’처럼 쓰면 좋겠네요.
하나 : 네! 그런가요? 많이 배웠습니다.

정답 ④

10. 일상생활(사회생활) 문화의 이해

휴대전화의 이모지는 1999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. 짧은 휴대전화 문자만으로는 전하고 싶었던 것과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. 그럴 때 사람의 표정이나 동물, 음식 등의 귀여운 이모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다. 일본의 휴대전화에서 생겨난 이모지는 이제는 전 세계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쓸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다.

- ① 어린이가 어른에게 보내는 문자이다.
- ② 1999년보다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.
-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분을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다.
- ④ 한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들어온 것이다.
- ⑤ 컴퓨터 이메일에서 생겨난 것이다.

정답 ③

[11~26] 의사소통 기능

11. 인사(만남) 표현의 이해

아이: 다녀오겠습니다.

엄마: 응, 잘 다녀와. _____.

- [illegible]

정답 해설: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엄마에게 인사하는 장면이므로, 엄마가 아이에게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. 그러므로 ⑤가 정답이다. **정답 ⑤**

12. 제안 표현의 이해

딸 : 이 과자 말이야,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대.

엄마: 그래? _____.

딸 : 신난다. 빨리 먹고 싶다.

- ① 한 번 먹어 봤어 ②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
③ 하나 사 볼까? ④ 정말 맛있었어
⑤ 좀 비싼 거 아니야?

정답 해설: 딸이 엄마에게 요즘 인기가 많은 과자라고 소개하는 상황이다. 빈칸 뒤에 이어지는 딸의 대화가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으므로, 빈칸에는 엄마가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‘ひとつ 買って みようか’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. 정답 ③

13. 사양과 의뢰 표현의 이해

선생님: 이 군, 지금 바빠?

학생 : 아뇨, (a) _____.

선생님: 미안한데, (b) ?

학생 : 네, 알겠습니다.

-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(a) | (b) |
| ① 됐습니다 | 복사해 왔어 |
| ② 무엇인가요? | 이 짐 들고 왔어 |
| ③ 충분해 | 잠깐 와 주지 않을래 |

- 정답 해설:** (a)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금 바쁘냐는 질문에, 학생이 ‘いえ’라고 답했으므로 ‘だいじょうぶですよ’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.
- (b) 선생님이 하는 말에 학생이 ‘네, 알겠습니다(はい、わかりました)’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의뢰하는 표현인 ‘ちょっと来て 出来ない, しゅくだい 集めて くれる, 本を返して きて 出来ない’가 들어갈 수 있다. 그러므로 ④가 정답이다. **정답 ④**

16. 방법 표현의 이해

A : 무슨 곤란한 일이 있으신가요?
 B : 아사쿠사에 가고 싶은데요, _____.
 A : 여기에서라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편리해요.

<보 기>

a. 어느 버스가 좋습니까? b. 어떻게 갑니까?
 c.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? d. 어떤 버스가 있습니까?

정답 해설: A가 '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편리하다'라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으므로, 빈칸에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묻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. 그러므로 가는 방법을 묻는 (b)와 (c)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. **정답 ③**

17. 경고 표현의 이해

엄마: _____! 차 오고 있어.

① 위험해 ② 시끄러워 ③ 미안해 ④ 빠르네 ⑤ 아쉽네

정답 해설: 차가 오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주의를 주며 외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'あぶない'가 적절하다. **정답 ①**

18. 감사 표현의 이해

A: 새로운 회사에서의 일은 어때요?
 B: _____ 잘 되고 있습니다.
 A: 그렇군요. 그럼 힘내세요.

① 기꺼이 ② 덕분에 ③ 꼭 언젠가
 ④ 괜찮으시다면 ⑤ 잘 모르니까

정답 해설: A가 새로운 직장 생활이 어떠냐고 안부를 물어보는 상황에서, B가 '잘되고 있다'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'おかげさまで'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. **정답 ②**

19. 포스터 내용의 이해

더 움직이자
 매일 조금씩 즐겁게 계속하자

① 놀기보다 더 일하자. ② 지나치게 달리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.
 ③ 달리기보다 자전거를 타시다. ④ 좀 더 움직여서 건강한 하루를 보내자.
 ⑤ 피곤할 때는 꼭 쉬고 싶다.

정답 해설: 포스터의 메시지는 건강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④가 답이 된다. **정답 ④**

20. 취향 표현의 이해

A: 겨울방학에 스키 타러 가지 않을래?
B: 음.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, 추운 곳은 _____.
A: 그렇구나. 그러면 다음에 어딘가 같이 가자.

- ① 정말 좋아 ② 천만에 ③ 무척 기대된다.
④ 사양하지 마 ⑤ 좀 안 좋아해

정답 해설: B가 스키를 타러 가는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‘ちょっとにがてなんだ’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. ‘にがて(苦手)だ’는 ‘서투르다, (~을) 꺼리하다, 잘 못 먹다’ 등의 뜻으로 대화에서는 추운 곳을 꺼리는 취향을 표현하고 있다. **정답 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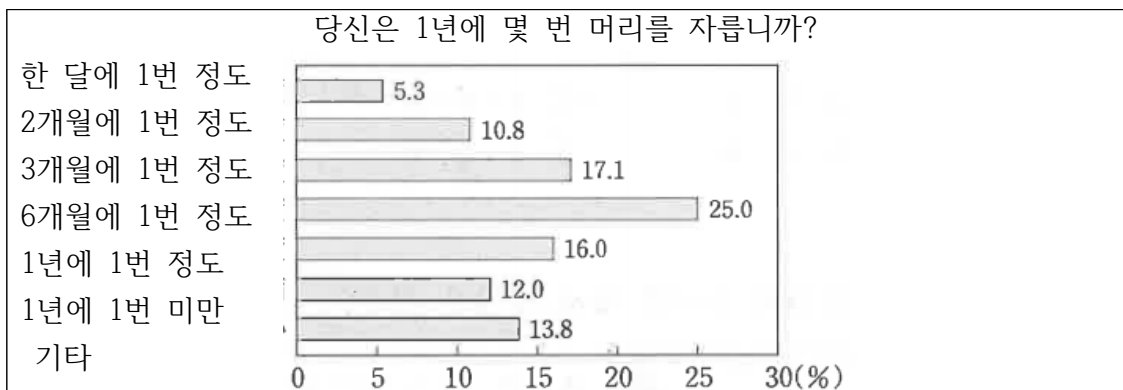
21. 승낙 표현의 이해

모리 : 김○○ 씨, 짐도 많고 공항까지 머니까 제 차로 함께 갈까요?
김○○: 네, 그래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_____.
모리 : 그럼, 내일 8시에 데리러 갈게요.

- ① 잘 어울리시네요 ② 상관없어요 ③ 물론이에요
④ 즐겁게 하겠습니다 ⑤ 꼭 부탁드립니다

정답 해설: 모리가 김○○ 씨에게 자신의 차로 같이 가겠냐고 제안하는 상황이다. 이에 대해 김○○ 씨가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‘ぜひ おねがいします’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. **정답 ⑤**

22. 그래프 내용의 이해



- ① ‘1년에 1번 미만’이 두 번째로 많다.
② 가장 적은 것은 ‘2개월에 1번 정도’이다.

③ '6개월에 1번 정도'는 '1년에 1번 정도'보다 많다.

④ '1년에 1번 미만'과 '3개월에 1번 정도'는 같다.

⑤ '3개월에 1번 정도'가 '1달에 1번 정도'보다 적다.

정답 해설: 二番目(にばんめ) 두 번째, 少(すく)ない 적다, 多(おおい) 많다, ~より ~보다, 同(おな)じだ 같다. **정답 ③**

23. 상황 설명 표현의 이해

A: 벌써 도착했어?

B: 지금 지하철을 막 탔어. _____.

A: 그럼, 역 편의점에 있을게.

B: 알겠어. 금방 갈게.

① 뒤따라 와

② 도착하면 전화해

③ 자전거라서 시간 걸려

④ 제때 못 가니까 이제 집에 갈게

⑤ 앞으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

정답 해설: '~た ところだ(막 ~했다)'는 동작이나 어떤 사실이 지금 막 종료된 직후의 상태로 '今', 'ちょうど' 등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. **정답 ⑤**

24. 추측 표현의 이해

아이: 아, 내리기 시작했네. 아버지 우산 챙겨 가셨어요?

엄마: 글썄. 하지만 오후에는 _____.

아이: 그렇구나. 그럼, 우산 필요 없으려나.

① 비가 더 세지는 거 아냐

② 눈으로 변할 것 같아

③ 날씨가 갠지도 몰라

④ 날씨가 나쁠지도 몰라

⑤ 비가 내릴 것 같아

정답 해설: 비가 내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우산을 챙겨갔는지 묻는 자녀에게 엄마가 'でも、午後には'이라고 상반된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. 자녀의 다음 대화에서 'じゃあ、かさ いらないかな'라고 반응하고 있으므로, 빈칸에는 날씨가 좋아질 것을 추측하는 표현이 와야 자연스럽다. **정답 ③**

25. 대화 흐름의 이해

나나미: 다쿠야의 취미는 뭐야?

다쿠야: 요리야. _____

나나미: 어머니, 굉장하다. _____

다쿠야: 요즘 자주 만드는 음식은 태국 요리야.

나나미: 좋네. _____

다쿠야: 응.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쉽게 만들 수 있어.

a. 예를 들어 어떤 요리? b. 나도 만들어 볼까?
c. 매일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있어.

정답 ⑤

A: 어, 이쪽 길이 맞아?
B: 응, 이 길은 차도 신호등도 적어서, 항상 _____.
A: 그렇구나. 처음 지나가는 거라서 깜짝 놀랐어.

- 정답 ④

정답 ②

유카리: 그 라면, 굉장히 _____ 보이네.
재호 : 그래? 맛있어. 좀 먹어 볼래?
유카리: 아니. 오늘은 그만둘게.

EBS

표현이 적절하므로 ‘からそうだ’의 동사 수식 형태인 ‘からそうに’가 옳은 표현이다.
정답 ②

29. 형용사 · 동사 활용의 이해

자연의 조용□을 즐기자
피곤하면 좀 쉬□ 가자

- ① 삼, 三(さん) ② 점, 点(てん) ③ 책, 本(ほん)
④ 부근, 辺(へん) ⑤ 무엇, 何(なん・なに)

정답 해설: ‘な형용사’의 명사형은 어간에 ‘~さ’가 접속되어 ‘静かさ(조용함)’가 된다.
1류 동사 ‘休む’의 ‘て형’이므로 ‘休んで’가 된다. 정답 ①

30. 문장 표현의 이해

아이: 여보세요. 엄마? 지금 학교인데요, 방에 물건을 (a)두고 와 버려서요.
엄마: 어, 뭘 두고 왔어?
아이: 노트요. 책상에 (b)놓여 있을 텐데, 봐줄래요?
엄마: 알겠어. 그러니까……, 아 (c)있다, 있어.
아이: 그럼, 그 노트의 지금부터 말하는 데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(d)보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.
엄마: 알겠는데. 엄마가 새 스마트폰이 (e)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기다려.

정답 해설: ‘~てほしい(~해 주기 바라다, ~해 주었으면 좋겠다)’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 주기를 바라는 표현이다.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에 (d)는 ‘(나한테) 보내줬으면 좋겠는데’로, ‘~てほしい’ 앞에 오는 엄마의 행위는 ‘送って もらって’가 아니라 ‘送って’가 되어야 한다. 정답 ④